

#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길수록 손해 '역차별'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내용과 파장

26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최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예상대로 공약에서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윤곽을 드러낸 기초연금 정부 시행방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20만~1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을 축소해 기초연금으로서의 보편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지급기준과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맞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복지부는 소득 상위 노인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아예 뺐다. 그 이유로 정부는 장기 재정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생산 가능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 1650만명, 2060년 1762만명으로 급증한다.

## 지급대상 70%로 축소 기초연금 보편성 잃어

단기적으로 따져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주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2014~2017년) 총 57조1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40년 기준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 142만원에 달한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약 4억 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에 차등 지급=기초연금 정부안은 또한 매달 20만원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식이다. 재정이 빠듯해 지급대상 노인에게 모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주기는 버겁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 대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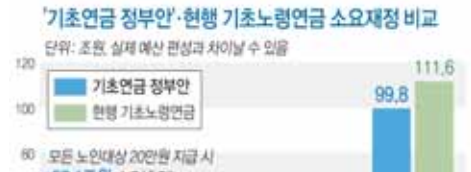


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無)연금 가입자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90%(353만명)는 애초 약속대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61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27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정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되돌아갈 수 없는 사진 속 시절의 그리움



### (45) 정글 만리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 만리'가 5주째 베스트셀러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작가의 열렬한 독자이기에 황금 같은 연휴 기간에 '정글 만리' 3권을 내리 읽었다.

중국 인구 14억, 중국 스스로의 예상을 40년이나 앞당겨 이룩한 G2,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대국굴기(大國掘起)'로서의 본심을 감추지 않은 중국의 저력에 새삼 오싹했다.

중국의 급부상은 미술계에서도 뜨겁다. 중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 샤오강(1958~)은 독특한 작품 세계와 최고의 그림 값으로 세계미술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다.

장 샤오강의 '대가족 No 12'는 낡은 흑백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멍한 시선에서 불안감과 압울함 그리고 황량한 분위기를 준다. 이와 비슷한 구도의 '혈연-대가족' 시리즈는 1990년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와 함께 전통과 근대, 시간과 속도의 충돌 등 격동의 시대를 겪어낸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자화상으로 해석되면서 강한 여운을 남긴다.



장 샤오강 작 '대가족 No 12'

“어느 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그 청초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사진을 통해 기억의 흔적을 재현한 작가의 작품들은 누구에게나 기억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떠올리게 한다.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혈연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절 속에서 가족은 때로 해체되기도 했을 것이다. 되돌아갈 수 없는 사진 속 시절의 그리움을 담은 서정적 이미지는 비슷한 시절을 겪은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미술시장에서 자국 화가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술품을 사들이는 중국 화상들은 보면 중국은 미술계에서도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장 샤오강이 그런 흐름 속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계미술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중국현대 미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작가임은 분명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5조 확충해도 순증액 1조5000억 지방재정 건전화엔 2조 모자란다

## 정부, 중앙·지방간 자원 조정 방안 문제점

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자원조정방안은 지방재정을 연간 5조원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 순증액이 1조5000억원에 불과할 뿐더러 설정 5조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건전화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소득세 독립·소비세 인상으로 자자체원 확충=이번 중앙·지방간 자원조정방안으로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 인상

### 취득세 중심 지방세 체계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 전환

### 배분방법 놓고 지자체간 다툼 우려

과 지방소득세 독립은 자자체원과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의 숙원이었다.

이번 자원조정방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

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자체별 탄력세를 적용을 통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커서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 논란=정부는 이번 자원조정방으로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순증액은 1조5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5조원 중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4000억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부 세액공제·감면 정비 등을 통한 지방 자체단체 자체확충액 1조1000억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를 인상에 따른 8000억원과,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000억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000억원 등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약 2조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현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이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7조원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현재 확충추정액은 5조원에 불과해 2조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편 자원 배분시 지자체간 분쟁 우려=중앙·지방간 자원조정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배분 과정에서 분쟁도 우려된다. 당장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대신 받게 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가 문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현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소비세는 민간회중소비지출과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배분액수가 지자체별로 거꾸돌이던 취득세액수와 차이가 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귀변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3
Photonics KOREA 2013

# 2013 국제광산업전시회

국내 최대의 광산업 전문 산업박람회!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기간 및 장소**  
2013. 10. 2(수) ~ 10. 4(금)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 2013 국제광산업전시회 특징**

- 차세대 광기반 융합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주제 전시회 개최
- 광산업의 미래유망기술 방향 제시 및 정보제공 등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개최
- 동부라이트, LG이노텍 등 국내외 200개 광 관련 업체 참가
- 미주, 아시아, 중남미 등 30개국 100명 이상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외 대규모 LED융합 프로젝트 및 LED 신규시장 진출전략 사업설명회 개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 구매 사업설명회 개최
- 광기반 융합산업분야 전시홍보관 구성·운영(광+의료·조선·환경·아트·자동차·국방·농생명·디자인)
- LED조명 테마관 및 차세대 미래비전 특별관 구성·운영
-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전시, 그림자(SHADOW) ART 및 마임 쇼

**▶ 참관신청(사전등록)**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사전등록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제광산업전시회 검색)
- 국제광산업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관신청 (<http://www.photonickorea.org>)

## IOCTC 2013

2013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2013. 10. 2(수) 김대중컨벤션센터

[www.photonickorea.org](http://www.photonickorea.org)

주최